

**The Gospel of Mark**

Sermon 63 – Sermon Notes

Title: “A plot to kill and an anointing”

Scripture: Mark 14:1-9

Date preached: November 19<sup>th</sup> 2023**Scripture: Mark 14:1-9**

**1** After two days it was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ought how they might take Him by trickery and put *Him* to death. **2** But they said, “Not during the feast, lest there be an uproar of the people.”

**3** And being in Bethany at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as He sat at the table, a woman came having an alabaster flask of very costly oil of spikenard. Then she broke the flask and poured *it* on His head. **4** But there were some who were indignant among themselves, and said, “Why was this fragrant oil wasted? **5** For it might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three hundred denarii and given to the poor.” And they criticized her sharply.

**6** But Jesus said, “Let her alone. Why do you trouble her? She has done a good work for Me. **7** For you have the poor with you always, and whenever you wish you may do them good; but Me you do not have always. **8**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come beforehand to anoint My body for burial. **9** Assured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told as a memorial to her.”

1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2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3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5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6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7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Review**

Before we consider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As I'm sure you remember we finished chapter number 13.

All of the things that we read in this chapter took place on the Tuesday of Passion Week. Mark devotes the whole of this chapter to Jesus discussion with the disciples Peter, James, John and Andrew. They had come to Him privately following His pronouncement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ey wanted to know when this would take place and, what signs they should look out for. We call the speech Jesus gives in answering their queries the Olivet Discourse.

The discourse ends with Jesus warning against time or date setting regarding when these end time events will take place. He does this by announcing that the exact date for His return is known only by God the Father.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or the Lord Jesus (at this time) knew when the second coming would occur. The fact that Jesus didn't know the time of His return has been the

cause of much debate over the centuries. If Jesus was God and God is omniscient, or all knowing how could He not know this information. We accept the biblical truth that Jesus was both fully God and fully man. The theological term for the coming-together of the two natures of Christ is called the hypostatic union. Jesus Christ was the only person that ever lived who had two natures merged into one person. But as Paul wrote to the church at Philippi as part of the incarnation or taking on of human flesh Jesus emptied Himself (Philippians 2:5-8). He lived if you like under the limitations of being a human man. Jesus retained all the attributes of divinity, yet, as a man, He voluntarily restricted their use. Scripture reveals that Jesus faithfully obeyed the Father's will and on this occasion God the Father did not will Him to have the knowledge of His second coming. Therefore, at this point in His ministry He could honestly say that He did not know the day or hour of His return. This does not diminish the deity of Jesus but simply affirms His full humanity.

The main point with all of this is that it is utterly foolish for human beings to try and make accurate predictions. Sadly this has not deterred many over the years, and still today from setting dates. Last week we ran through a list of people who have all wrongly predicted the return of our Lord and saviour. I repeat the warning I gave you last time. Ignore such people for the false teachers they are.

However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never think about these things, or to bury our heads in the sand. We are called upon to carefully look at and consider what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Are the events happening today in Israel significant? Is the dramatic rise in Jews coming to Christ and returning to their ancestral homeland worth noting? Yes, absolutely. Is it a sign that the end may be close? Quite possibly. Assume that it is and you will never be caught off guard.

Jesus closes the Olivet Discourse with a parable. The parable is intended to remind His hearers of the importance of staying vigilant and ready. The parable concerns a wealthy man and his household. The man has to travel to a far off country. Therefore he leaves his servants and the doorkeeper in charge whilst he is away. The servants are given work to do, and the doorkeeper is commanded to keep watch. The reason for this vigilance is that they do not know when their master will return. He would be most displeased to return and find them sleeping or not doing the work they were assigned. The man in the parable is the Lord Jesus. The house represents the church. The servants and the doorkeeper are those tasked with looking after and caring for Christ's church. At this present time our master the Lord Jesus is away. He is in heaven seated at the right-hand side of the Father. But soon, and we cannot say when, He will return. When He does we don't want Him to find us sleeping (being lazy) or not doing the work we to which we have been called. Therefore the call is for us to watch! To be ready for our saviours return.

오늘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13 장을 마쳤습니다. 13 장에서의 모든 일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이 장 전체를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의 예수님의 토론에 할애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파괴에 관한 그분의 선언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징후를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신 연설을 감람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마지막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 시간이나 날짜 설정에 대해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주 예수님도(그 때 당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 시기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것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받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위격적 연합 hypostatic union 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합쳐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것처럼, 성육신의 일환으로, 즉 인간의 육체를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빌 2:5-8). 그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의 모든 속성을 유지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그 속성의 사용을 제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으며 이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재림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사역의 그 당시 시점에서 그분은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요 요점은 인간이 정확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날짜를 지정하려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주 구원자의 재림을 잘못 예측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해보았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경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니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말라거나 우리의 머리를 모래 속에 묻어 두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의미심장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조상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극적인 증가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신호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방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감람산 설교를 마치십니다.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부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하인과 문지기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하인들에게는 할 일이 주어지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아와서 그들이 자고 있거나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몹시 언짢아 하실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과 문지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떠나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할 수 없지만 곧 돌아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자고 있거나(게으름) 부름 받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태로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Introduction**

The Tuesday of Passion Week was certainly an event filled day. Mark as we have seen devotes a lengthy section of his gospel to the events of this day. Finally, it's over and Wednesday begins. Traditionally this day was referred to as "Spy Wednesday." This reflects the fact that it was on this day that Judas Iscariot conspired against the Lord. Compared to Tuesday the Wednesday of Passion Week is very quiet. None of the synoptic gospel writers devote much time to it. We are left therefore wondering how Jesus spent this day. Given how little time remained to Him we might have imagined that He'd have been very busy. However it appears as if He spent most of the day quietly in the company of the disciples. What did they do? Did Jesus spend the day teaching and preparing them for what was to soon happen? Did they enjoy a day walking in the hills? Or did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relaxing in Bethany? God's Word does not say so we must be content with what is given to us. Let us look then at what occurred on the Wednesday of Passion Week.

고난 주간의 화요일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이날의 사건들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이 끝나고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을 '스파이 수요일 Spy Wednesday'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가 주님을 거스려 음모를 꾸민 날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에 비해 고난주간 수요일은 매우 조용합니다. 공관복음 저자 중 누구도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 지를 생각하면 그분이 매우 바빴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루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데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언덕을 걸으면서 그 하루를 즐겼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베다니에서 쉬면서 보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 주어진 내용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수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After two days it was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ought how they might take Him by trickery and put Him to death. 2 But they said, “Not during the feast, lest there be an uproar of the people.”**

I have to confess that until recently I had always misread this verse. I read it to mean that Mark was picking up the action **two days after** the events of Tuesday. This is of course not what is being conveyed here. Matthew states it much more clearly.

**1 Now it came to pass, when Jesus had finished all these sayings, that He said to His disciples, 2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is the Passover,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up to be crucified.” (Matt 26:1-2)**

So The Olivet Discourse (**all these sayings**) as we know took place on Tuesday. The feast of Passover begins two days later on Thursday. So as I explained in my introduction the things we are reading about here took place on the Wednesday Passion week. It occurred to me as I was preparing this that I have frequently referred to the final week of the Lord Jesus' earthly ministry as the “Passion Week.” I'm sure you know what I mean when I use this title, but you may be unaware of why we use the term “passion.”

Today we use the word passion to express a strong emotion, conviction or intense feeling. We might describe someone who loves sport as having a “passion for sport.” You might have a passion for watching TV dramas, knitting, learning a foreign language or hopefully reading your bible. But the “passion” used to describe Jesus' last week comes from the Greek verb *pascho*, meaning, “to experience a sensation or impression (usually painful), to feel, to suffer or to be vexed.” So when we speak of Jesus Passion we mean the suffering and anguish that He experienced of endured on our behalf. Anyway after that mini detour back to our account.

**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2**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저는 최근까지 이 구절을 항상 잘못 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화요일 사건 **이틀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님

니다. 마태는 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설교(이 모든 말씀)는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틀 뒤인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고난 주간 중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 passion week”이라고 자주 언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사용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열정 pa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한 감정, 확신 또는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열정 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TV 드라마 시청, 뜨개질, 외국어 공부 또는 성경 읽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주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열정 passion”은 “감각이나 느낌(보통 고통스러운)을 경험하다, 느끼다, 고통받다, 화를 내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 파스코(pascho)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 말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고통과 고뇌를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The Jews began to celebrate Passover on the fourteenth of Nisan (March or April),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llowed on the fifteenth through the twenty-first of Nisan. So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a one week celebration.

What exactly was the Passover? Passover commemorated the Israelites' redemption from slavery in Egypt at the time of the Exodus (Exod. 12:1—13:16). The Jews remembered how on this day the angel of death passed over and the homes of the Israelites who had placed the blood of a lamb on their door-posts. They remembered on this yearly celebration how God in His loving mercy had spared them from death.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was a memorial to remember the haste in which the Israelites left Egypt. God told them to be ready to leave and hence there was no time to bake bread with leaven or yeast included. This is of course where the celebration's name comes from.

It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Passover were considered as one, and the name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t was a major celebration and every possible preparation was made for the event. For a month before it began, the meaning of Passover was explained in each synagogue and Jewish school so that no one, young or old was unprepared.

Passover was also a pilgrim feast which meant that Jews were expected to travel to Jerusalem in order to celebrate together. This was a requirement of the Mosaic Law (Deut 16:16). It meant as you can imagine that Jerusalem became insanely overcrowded. One writer claimed that the population of Jerusalem swelled from its normal size of around 50,000 to more than 250,000 at Passover time.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니산월 14 일(3 월 또는 4 월)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니산월 15 일부터 21 일까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축제였습니다.

유월절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출 12:1-13:16). 유대인들은 이날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매년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자비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떠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였고 그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구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절기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그 이름이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절기였으며 행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각 회당과 유대 학교에서 유월절의 뜻을 강론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준비하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해야 하는 순례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지켜졌습니다(신 16:16).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었습니다. 한 저술가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보통 50,000 명 정도였는데 유월절 기간에는 250,000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we read about the wicked schemes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They had sought without success to try and trap Him in His words. We saw how they made repeated efforts to do so. We should note here that they do not merely seek to arrest and imprison this innocent man. Rather they want to kill Him, and put Him permanently out of the way. However this has to be done with extreme caution. With the city full of Passover pilgrims, many of whom held Jesus in high regard they feared a potential riot. It was certainly the case that the city was a tense and potentially volatile place during these gatherings. The Jewish pilgrims were zealous for freedom from their Roman oppressors so it would not take much to get them riled up. Therefore the Jewish leaders did not want to make a move against Jesus in public during the Passover. It would be better they determined to wait until the crowds had gone. Their plans however were thwarted. Jesus was arrested and killed during the Passover celebrations. This just goes to show how Jesus always remained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Let us continue.

이러한 배경 지식을 염두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계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했는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단지 죄없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투옥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고 영원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극도로 주의해서 행해야 했습니다. 그 도시는 유월절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잠재적인 폭동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절기 동안 도시는 긴장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 순례자들은 로마의 압제자들로 부터의 자유를 위해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분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동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중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합시다.

**3 And being in Bethany at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as He sat at the table, a woman came having an alabaster flask of very costly oil of spikenard. Then she broke the flask and poured**

**it on His head.**

Before looking at this event in more detail I have to point out that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surrounding when this took place. John in his gospel records this incident taking place prior to the triumphal entry (John 12:1-8). Many scholars therefore think that Mark has deliberately inserted this account here, out of chronological sequence. He has done this in order to encourage us to draw a contrast between the woman and her act of loving devotion and Judas Iscariot and his selfish act of bitter betrayal. Whatever position we take as regards when this took place it does not fundamentally impact our understanding of what took place. Let's consider what we are told.

These events took place in the small town of Bethany located on the lower eastern slope of the Mount of Olives about two miles east of Jerusalem. This remember was where Jesus based Himself during the final period of His earthly ministry. In particular the events we are reading about took place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In reality, he was Simon the former leper. Lepers you see were not permitted to host dinner parties. Was it the Lord Jesus who healed Simon of his leprosy? It's a strong possibility.

So Jesus is sat, or more probably reclining at the table when He is approached by an unnamed woman. We know however from John's account that it was Mary, sister of Martha and Lazarus. She is carrying an alabaster flask of spikenard oil. The alabaster flask made of a soft marble-like stone imported from Egypt was a precious and valuable object. It may have even have been an important family heirloom.

What you may ask is spikenard oil? Well it's a kind of sweet smelling oil or nard (perfume) that is derived from the roots of a rare plant (*Nardostachys Jatamansi*) found only in India.

Mary then broke the flask and poured its contents over Jesus head. Why we might wonder did Mary break the flask. Was such an act necessary? Presumably the oil could be poured out from the neck in the same way it had been put inside the flask. We are left here to speculate a little. It is possible that the flask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 had to be broken in order to access the contents. This would mean the contents had to be used in one single application. John tells us that the flask contained a **pound of ointment (John 12:3)**. The word "pound"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litra*. A Roman pound or *litra* was equivalent to 329 grams which means the volume of perfume Mary had in the flask was equivalent to can of Coca Cola today. That was a considerable amount of oil.

Or did she break the flask in order that the flask might never be used again. After the holy task of anointing the Messiah how could the flask ever be used again? Or is it an indication of what Mary was willing to give up for the Lord Jesus? Did it show that she would hold nothing back, not only the costly perfume but also the flask in which the perfume resided. I personally prefer this final speculation.

Why did Mary pour her oil over Jesus head? To us that may seem strange. It's not something we'd do if invited to a dinner party today. But in Jesus day anointing a guest's head was a common way to honour a person at a festive occasion. When a guest arrived for a meal, it was customary to anoint the guest's head with a dab of oil. But here something far more is going on. Mary through this act is expressing her love to Jesus because He was going to the cross to die for her. She is, through this ritual act of anointing preparing His body for burial. This was a gesture of her great love for Jesus. Let us read on.

**3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승리의 입성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요한복음 12:1-8).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마가가 이 기록을 연대순에 어긋나게 의도적으로 여기에 삽입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그 여자와 그녀의 사랑에 찬 헌신의 행위,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의 이기적인 쓰라린 배반 행위를 대조시켜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근본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 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기간 동안 머무셨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사건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에 나병환자였던 시몬이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만찬을 주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분은 주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가 다가왔을 때 앉으셨거나 아마도 식탁에 기대어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을 통해 그 여인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드 기름이 담긴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입한 부드러운 대리석 같은 돌로 만든 옥합은 귀중하고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가족 가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드 기름은 무엇일까요?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식물(Nardostachys Jatamansi)의 뿌리에서 추출한 일종의 달콤한 향기가 나는 나드(향수) 기름입니다.

마리아는 그 병을 깨뜨려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꼭 필요했나요? 아마도 기름을 병 안에 넣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병에서 부을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약간의 추측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에 접근하려면 병을 깨뜨려야 하는 방식으로 병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내용물이 단 한번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옥합에 **향유한 파운드**가 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요한복음 12:3**). 여기서 "파운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리트라 *litra* 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 파운드 또는 리트라는 329 그램에 해당하는데 이는 마리아가 가진 병에 들어있던 향유의 양이 오늘날 코카콜라 캔과 비슷합니다. 상당한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그 옥합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을 깨뜨렸을까요?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거룩한 임무를 마친 후에 어떻게 그 병이 다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마리아가 주 예수를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뿐 아니라 그 향유가 들어 있는 병까지 드림으로써 아무 것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종 추측을 선호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파티에 초대되었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공경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손님이 식사하러 오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살짝 바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름을 붓는 의식 행위를 통해 그분



의 몸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 But there were some who were indignant among themselves, and said, “Why was this fragrant oil wasted? 5 For it might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three hundred denarii and given to the poor.” And they criticized her sharply.**

Mary's extravagant, and loving gesture is not appreciated by all those present. There were some who were indignant or greatly displeased by this act. Mark does not mention who it was, but John does. Here's what his account tells us.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Simon's son, who would betray Him, said, 5 “Why was this fragrant oil not sold for three hundred denarii and given to the poor?” 6 This he said, not that he cared for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nd had the money box; and he used to take what was put in it. (John 12:4-6)**

Judas' complaint derives from his perceived waste of this valuable commodity. He estimates its value at more than 300 denarii. As I have explained before a denarius was a day's wage for a common labourer in Jesus day. So in effect this flask and its contents were almost the equivalent to a years salary. Can you imagine spending a years salary at one time! It was a waste he proclaimed because it could have been used to help the poor and do much good at alleviating poverty. Apparently on Passover eve it was customary to give a special offering for the poor.

We know of course that Judas was a liar and a thief. He had no great love or concern for the poor. He was simply a greedy man. As the disciple charged with looking after the money he saw it as an opportunity to fill his own pockets.

Judas may have been the one who started the complaint but others it seemed joined him.

Mark points out that “they” criticized Mary sharply. The words used here in English are a little weak. What is being conveyed here is that they snorted with anger. Picture an enraged bull flaring its nostrils and you get a sense of the way these men reacted to Mary's act of devotion. The disciples could see no reason for this “waste”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death was imminent. Let us see how Jesus responds to their sharp criticism of Mary.

**4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5 이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마리아의 사치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를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에 분개하거나 크게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은 언급합니다. 그의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 중 하나이며 그분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6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요한복음 12:4-6)**

유다의 불평은 이 귀중한 물건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는 그 가치를 300 데나리온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옥합과 그 내용물은 거의 1년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일년치 급

여를 한번에 써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써버리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 전 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유다는 거짓말쟁이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그는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불평을 시작한 사람은 유다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합류한 것 같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마리아를 날카롭게 비난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조금 약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분노로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황소가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들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날카로운 비난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6 But Jesus said, “Let her alone. Why do you trouble her? She has done a good work for Me.**

The Lord Jesus here defends Mary's act. They are not to criticise, or trouble her for her great act of love and devotion. In fact, they should have commended her rather than condemning her. What she did was a good and beautiful thing. Let us continue.

### **6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위대한 행동을 비난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계속합시다.

### **7 For you have the poor with you always, and whenever you wish you may do them good; but Me you do not have always. 8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come beforehand to anoint My body for burial.**

We should be careful here not to misunderstand the Lord's words here. He is neither minimising the suffering or the plight of the poor, or telling us we should not care for them. The poor had a special place in Jewish obligations as is stressed in Deuteronomy chapter 15 (15:1–11). The outcasts and marginalised also had a special place in the heart of our Lord and saviour. So Jesus fully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ministry to the poor. When we devote our time or resources to helping we are doing a very good thing.

The point that Jesus is making here is that we will never be limited in the opportunities we have to assist the poor.

You can rea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 have taken from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Here's what they state as their goal when it comes to poverty.

*“Eradicating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 by 2030 is a pivotal goal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overty/>)*

A worthy aim perhaps, but we all know that such a goal is “pie in the sky.” It's simply unachievable. Sadly we will always have the poor. Even in developed nations like the US,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here will always be people living in poverty. Therefore wherever we are we will never be short of opportunities to help those in need.

But Jesus by contrast was only present on earth for a very short time. Those living in the first century had just a few years in which to interact with the God man. Perhaps they didn't realise it at the time, despite the fact that Jesus had told them what would happen. So Mary had taken her once-in-a life time opportunity to minister to her Messiah and to prepare for his death. Perfume was often used as a burial spice. We know for example that it was used by Joseph of Arimathea and Nicodemus at Jesus's burial (John 19:39-40). So the Lord Jesus interprets her deed here as a prophetic act pointing forward to His burial. Let us conclude our study by looking at verse 9.

**7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나 곤경을 축소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 장(15:1~11)에서 강조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의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도 우리 주이신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셨습니다. 시간이나 자원을 도우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UN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발췌한 다음 성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빈곤에 관한 그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30 년까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의 핵심 목표입니다.”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overty/>)

어쩌면 가치 있는 목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목표가 "하늘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도 항상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 땅에 계셨습니다. 1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God-man 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이용하여 메시아를 섬기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향유는 장례용 향신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장례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요한복음 19:39-40). 그래서 주 예수님은 여기서 그녀의 행위를 그분의 장사를 예고하는 예언적 행위로 해석하십니다. 9 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 Assured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told as a memorial to her.”**

This incident comes to a close with the Lord Jesus making two promises.

The first deals with the eventual spread and proclamation of the gospel. Jesus doesn't limit the spread to Israel, the neighbouring nations or even the Roman empire. He tells His listeners that this gospel (good news)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That of course indicates that when He departs He will be gone for some time. In modern times the gospel message can be shared and spread quickly. The internet allows us to reach many people quite easily. But in the past the gospel had to be carried and shared by word of mouth.

The second promise concerns how Mary's act will be remembered forever. This is because what she did is recorded in God's revelation. The disciples as we have seen longed for recognition, fame and positions of power in Christ's Kingdom. But this did not interest Mary. She found an enduring memorial not by longing for a position of honour, but simply by loving Jesus and serving Him.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the deeds and words of men are remembered only as long as they exist in the mind and can be conveyed to others. We know that when we die the things we said or did during our lifetimes will largely be forgotten. It may be true that the deeds of men may be recorded in books or today stored on digital forms of media but these things have only a limited shelf life. Books eventually crumble into dust. Compact discs or digital storage files become corrupted and can no longer be accessed. But God's Word has eternal permanence.

As we are told by the prophet Isaiah;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Isaiah 40:8)**

So whenever and wherever the gospels are read or preached what Mary did when she anointed our Lord and saviour will be remembered and celebrated. The Lord's words are today fulfilled in this very room. Today we, removed by close to 2000 years are touched and moved by what Mary did.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Judas' betrayal of the Lord and Jesus celebrating the Passover with His disciples.

**9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은 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의 궁극적인 확산과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 확산을 이스라엘, 이웃 국가, 로마 제국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복음(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떠나실 때 얼마 동안 떠나 계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대에는 복음 메시지가 빠르게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마리아의 행위가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인정과 명성과 권력의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명예로운 지위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것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동안에만 기억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평생 동안 말하거나 행한 일들이 대부분 잊혀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책에 기록되거나 오늘날 디지털 형태의 장치에 저장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의 유효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책은 결국 먼지로 부서집니다. 콤팩트 디스크나 디지털 저장 파일이 손상되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속성을 갖

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8)**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읽히고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 구원자에게 기름 부은 일은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방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거의 2000 년이 지난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일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다음 주에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일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살펴 보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1 Don't lose sight of what's really important**

Have you ever heard the term the “Social gospel?” You might think that this is a relatively new movement but you'd be wrong. The movement can trace its roots all the way back to the late 1800's. Promoters of the social gospel back then and still today seek to apply Christian principles to social problems. They become concerned with things like equal rights reforms, alleviating poverty, promoting good nutri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helping people with alcohol or drug addictions. Now these things are all important. They are things that as Christians we ought to be concerned about. But the great danger of the social gospel is that as these social needs were emphasized, the doctrines of sin, salvation, heaven and hell, and the future kingdom of God were downplayed. Or to put it more simply the priorities became confused. People's real need is to hear the gospel message. Give them the good news first and then help them in other ways.

We saw this in today's account. We know that Judas was not being genuine, but he along with the other disciples claimed they wanted to help the poor. Mary on the other hand knew it was right and proper to first worship the Lord.

What about us? Where do our priorities lie? Are we putting other things before what's really important? Let us seek the Holy Spirit's wisdom and guidance so that we don't ever lose sight of what's really important.

'사회 복음 social gospel'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비교적 새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뿌리는 1800 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나 오늘날의 사회 복음 옹호자들은 기독교 원칙을 사회 문제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평등권 개혁, 빈곤 완화, 좋은 영양과 건강 증진, 교육,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를 돕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음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가 강조되면서 죄, 구원, 천국과 지옥,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가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먼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 **2 Don't be put off by the criticism of others**

Mary in today's account was sharply criticised by some of the disciples. They viewed what she did to be a waste. They questioned her judgement in doing such a thing. Surely the better option would have been to use those resources to help the poor. What she did however was the right thing, and she earned the defence and praise of the Lord Jesus. I wonder if at times we too face the harsh criticism of others. Do others look at what we are doing and criticise us sharply?

Do people look at us and think that we are making the wrong choices? Perhaps your family disagree with your Christian faith. Perhaps they think you are caught up in a cult. Perhaps you are criticised for not taking part in the *jesa* each holiday season. Maybe you are criticised for your involvement in the church. Perhaps your spouse or other family members think you do too much, are too involved in church things. Perhaps your friends criticise you for not being the great drinking buddy you used to be. For refusing to go on trips on a Sunday because you go to church. These are just some examples, and I am sure you can think of many others.

It's hard and often discouraging when we face the criticism of others. But we should take comfort and strength from the example of Mary. She did what she knew to be right even though it made those watching angry and indignant. May we too continue to do what is right as we attempt to live good and pleasing lives before God.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일부 제자들로부터 날카롭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한 일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그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고, 그녀는 주 예수님의 변호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가혹한 비판에 직면하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날카롭게 비난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당신이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좋은 술 친구가 아니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하는 여행을 거부한 것 등등.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며, 다른 많은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할 때 힘들고 종종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모범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켜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개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